

시론

평화라는 단어로 평화를 말하면 평화가 오지 않아요



주홍
자유예술가

“들이 훨 같을 삶의 무게여- 이한 구절이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노래 전부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가장력 있고 감정 잘 넣어서 부르는 동네 언니들의 18번, 백창우 작곡가가 19살에 작사 작곡한 노래, 가수 임희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다.

사단법인 코리아로드런 모임에서 매주 월요일 광주의 창작음악인들과 함께 시인, 철학자, 음악인 등을 모셔서 예술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내는 공리를 하고, 창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7월8일 저녁 동명병원 10층에 모여 ‘시는 어떻게 노래가 되는가?’에 대한 백창우 선생의 시와 노래 이야기를 들었다. 정답은 없다. 당신이 가장 재미있는 문장 하나가 노래가 되도록 발견하고 흥얼거리며 날마다 계속 놀면 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고유한

시선과 소리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으로 세상을 다양한 시선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글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게 백창우의 창작 법이다. 그는 대화 중에 기타를 들고 ‘울 데가 없다’라는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 어디 가요? / 예배당 간다 / 근데 왜 울면서 가요? / 울려고 간다 / 예 예배당 가서 울어요? / 울 데가 없다 / 울 데가 없다 / 울 데가 없다 / 울 데가 -”

기타를 핑기며 말하듯이 부르는 이 짧은 노래에 눈물이 고였다. 광주는 울 데가 없어요. 울 데가...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 짧은 노래가 가수의 목소리를 타고 공명하며 교실을 교회당으로 만들었다. 노래는 그렇게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중학교 때 누나가 선물한 기타를 치며 저절로 흥얼거리던 운동주의 시, 소월의 시 중 한 대목을 흥얼거리다가 노래가 나왔고 가수가 됐다. 백창우 작곡가, 그는 시가 먼저이고 그 다음 노래가 되고 가수가 다시 해석해서 새로운 노래로 태어난다고 했다. 사람들이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라이터송싱어(Writer-Song-Singer)의 순서

가 백창우의 창작법이다. 그리고 세상에 같은 노래는 없다는 것이다. 매번 한 번 뿐인 노래다. 부르는 가수가 다르면 다른 노래가 되고 같은 가수라도 어떤 시공간에서 부르는가? 누구 앞에서 부르는가? 그때 몸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다. 창작자로서 공감아가는 대목이었다.

노래가 되는 한 줄 글이 있다. 시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나는 본다. 내 눈으로! 나는 듣는다. 내 귀로! 나는 느낀다. 내 가슴으로! ...’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 내 감각과 느낌이라는 고유성이 있는 한 문장이 나오면 소리내어 읽어보고 또 읽어 보면, 노래는 저절로 되니까요.

“시 하나하나가 세상에 하나뿐이듯 노래 하나하나도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저마다 다른 얼굴과 말투와 느낌을 가졌습니다. 시는 어떻게 노래가 되는가? 정답은 없다.” - 백창우-

남과 북이 갈라친 철조망과 판문점을 넘어 평화의 길을 가고자 창작을 한다면 평화를 말하지 않고 평화를 말해야 상투적인 평화가 아니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물들 수 있다고 했다. 시와 노래간의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

社說

고발전 비화 광주 남구의회 하반기 원 구성 쟁불견

광주 남구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투표 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고발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편가르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는 지경이다. 불수록 가관이라며 주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에도 힘이 실린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최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기획총무위원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촬영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다.

해당 본회의는 제9대 하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뒤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을 뽑는 자리였다. 문제는 기획총무위원장 선거로 불법 의혹이 출현된 것이다. 남구의회는 산회를 선포,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 뒤 고발이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1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구의회

가 법적 공방에 휩싸이고 있다. 집행부 업무 보고 청취 등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원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처음으로 의장을 배출하면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도 있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 크고 작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후보들 간 야합, 출신지 간 대립, 음주운전, 이해충돌 논란, 협박,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사정이 이러한 데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 30주년을 맞았으나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횡행하고 있다. 일부 부적격 의원에 대한 도덕성 시비 등 자질 부족이 도마위에 거듭 오르기도 있다. 무용론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대오각성하고 당장의 회를 정상화하라. 풀뿌리 민주주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씁쓸하다.

올 가을엔 ‘G-페스타’로 즐거운 썰매도시 광주

광주시는 민선8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썰매도시’를 위해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등 관광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또 계절별 명확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 통합 연계로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를 구제화하고 있다.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예술 콘셉트의 시즌 ‘조이풀(Joyful) 광주’는 비엔날레, 에이스페어, 사운드파크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 추어의 총장축제 등 12개로 구성됐다.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식품대전, 감지축제, 송정남도 맛페스티벌, 서정영새축제 등 6개다.

G-페스타는 특히 아시아문화중심이자 예술여행, 맛의 도시 광주의 매력을 느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결한 체류형 관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 축제, 행사

의 정체성과 강점을 유지하면서 통합 홍보, 연계 행사 개발, 관광상품 발굴 등을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문화기관들이 힘을 모은 이유다.

올 가을에는 광주가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축제와 축제, 축제와 행사, 행사와 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더욱 풍성하고 규모 있게 신명난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G-페스타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총출동해 홍보 전략부터 짜야 한다.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외지인을 더 끌어들이는 마케팅이 절실하다.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많은 축제와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다.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야 한다. 지금껏 보고, 듣고,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게 관건일 듯싶다. 상호 보완하며 상승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할 것이다.

문화난장



하숙자
전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저녁 7시, 동동 북소리가 울린다. 진도에서의 풍경이다. 진도는 문화예술특구지역이어서 면단위마다 문화전수관이 있다. 지산면 전수관을 찾았다. 수강생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의구심이 사라졌다. 청소년, 청년, 노인은 물론 일과를 마친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예술에 탐닉해 있었다. 일주 20여명의 주민들이 구름 장단에 맞춰 몸동작을 하느라 열기가 후끈했다.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면 소재지에서 한참 떨어진 소포리, 심지어 광주에서도 온단다. 대부분은 요일별로 진행되는 진도 민장, 들노래, 북춤 등 전수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열혈 학습자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주민들이 전수관으로 밤마실을 다니는 상황은 다른 면도 마찬가지였다. 진도사람들, 꼭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흥과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감동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진 이들이다.

사실 지산면 전수관을 찾게 된 것은 지난 6월 진도-성주 영호남 교육교류 때 보여준 지산초등학교 아이들의 진도소포리결구농악 공연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다. 진도소포리결구농악은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 39호로, 임진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문화, 진도서 출발해보자

란 때 왜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만들어진 군작전 놀이에서 유래되었다. 결구농악은 군작전 놀이인 만큼 학식과 지혜를 갖춘 집사가 농악대를 통솔한다. 지산초등학교는 막저학년부터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농악대가 된다. 저학년은 소고를 들고, 고학년은 장구와 팽과리리 흥을 돋우며, 북으로 사기를 울린다. 농악대에 빠질 수 없는 상모군들이 유려하게 상모를 돌리니 마당은 화려하다. 농악대는 집사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태극으로 감았다가 풀어나고 일자형 대형, 중첩으로 대형을 구성하는 등 분산과 집중, 휘몰아치다, 고요해 지는 정중동기법을 구사하며 마당을 쥐락 펴락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이 농악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내 환호와 탄성으로 장내를 뒤바꿔 버렸다.

국악은 젊은이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맥이 끊기기 십상이다. 그런데 진도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가 중심이 돼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어 나가고 있어 맥이 끊길 염려는 없다. 더구나 지산면은 진도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전통예술 이음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터여서 더욱 활발했다. 그 뿐인가 며칠 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린 진도국악고등학교 진향제에서 학생들이 사물 등 우리 악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신명을 넘어 마치 신기 들린 듯하였다. 숨이 멎는 듯,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국악과 학생들의 창작곡도 수준급으로 우리 음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아는 것이 존재를 파악하는 상태라면, 좋아하는 것은 아직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한 것이고 즐기는 것은 완전히 터득해 자기 것으로 삼아서 생활하고 있는 경지라고 했다. 이른바 즐기는 것이 밥이 되는, 노동과 놀이가 일치되는 세상이다. 예술이 밥이 될 수 있을까? 산업사회에서는 어렵지 않은 소리였다. 그래서 속된 말로 ‘예술이 밥 먹여주냐’가 사회적 통념이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후기 자본주의로 접어들고 문화강국이 된 마당에는 양상이 다르다. 예술이 밥이 된다. 아니,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예술이 삶에 편재돼야 살아갈 수 있다.

인구소멸 위기가 닥치고 있다. 진도는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전통문화의 씨앗이 날 것으로 있다는 게 큰 이점이다. 이게 착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인구소멸 시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무형문화들을 기반으로 예술대학의 분원이 진도에 유치되고, 젊은이들이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소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제2의 방탄소년단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획사가 나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사회적으로는 진도에서라면 자신만의 고귀하고 신비한 신화를 펼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화되는 고장이면 어떠할까.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진도를 거쳐야 한다는 목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화도시로서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할 때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옛말이다.

며칠 전에 본 기자가 시민이 걱정하는 지방자치를 거론한 바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는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이 17명(정의당 3·무소속 2명), 과반으로 이번 지각 원구성의 책임에서 자유

소탐대실(小貪大失)

롭지 못하다. 문제의 발단은 제12대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협치보다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비 민주당이 5석이나 되는데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4석 중 총 6석에 후보를 모두 내는 자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곧바로 비 민주당계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선심을 쓰듯이 기획복지위원장 자리를 정의당에 양보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모 의원은 음주운전 재판 사실을 감춘 채 도전하기도 했다. 결국 부의장 선거에서 비 민주당계 무소

속 후보가 선출됐고, 상임위원장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또 다른 후보는 단독임에도 이해충돌 시비로 부결됐다.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만큼 항상 거울을 통해 스스로 모습을 비춰야 한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고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권에는 개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울은 자신의 결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도구다.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은 의미도 갖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 거울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목포시의회가 아니라 목포시의회가 시민을 걱정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작년 취업하러 한국 온 외국인 17만3천명...역대 2위

지난해 고용허가제 확대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총이동자는 127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15만1천명(13.5%) 증가했다.

총이동자 수는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를 합한 것이다. 이 중 입국자는 68만8천명, 출국자는 5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2천명(15.2%), 5만9천명(11.4%) 늘었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 순이동은 12만1천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순유입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3만3천명 증가했다. 국제 이동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88만7천명) 바닥을 찍은 뒤 2년째 증가세다.

외국인 입국은 48만명, 출국은 31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만7천명(16.2%), 7만5천명(30.5%) 증가했다. 16만1천명 순유입으로 순유입 규모는 전년보다 8천명 줄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이 17만3천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3만5천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08년(17만6천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규토국월 15,000원 1부 800원